

“불교중흥 발원한 천막결사, 장하고 장한 일”

조계종 중정 진제스님 특별법어
대신심으로 정진 끈 놓지 말라
작은 물이 모여 큰 물결 이루듯
결사원력, 수행풍토개선에 도움
용맹심으로 정진해 결실 이루길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이 동안거 기간 동안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며 용맹정진에 나서는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을 격려하면서 특별법어를 내렸다. 중정스님이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전제대중 법어에 앞서 특별법어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진제 스님은 10월22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법보신문 취재진과 만나 위례천막결사에 임하는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며 특별법어를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마음은 만가지 진리법의 주인”이라면서 “이 마음을 깨달아 알 것 같으면 만법이 임의자재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온갖 무명업식으로 인해 번뇌가 설 날이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스님은 “중생들은 대신심과 대용맹심으로 일체지 일체시에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용맹정진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을 밝히 만법의 주인이 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이어 “상월선원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운회의 흐름

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의 대오견성하기 위함”이라며 “상월선원 대중들은 인연에 따라 종단의 여러 소임을 맡아 원만히 성만하고, 또 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제에 임하고 있으니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다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진제 스님은 특별법어에 앞서 법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한겨울 허허벌판에 천막선원을 짓고 정진하는 것은 그동안 제방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면서 “9명 스님들이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원력을 낸 것은 그 자체로 장하고 장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스님은 이어 “주요 행정소임을 맡아 중단발전에 기여했던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 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스님들의 정진은 많은 수행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위례천막결사 대중이 동안거 해제 때까지 묵언하고, 하루 한 끼만 공양하면서 매일 14시간 정진하는 등의 청규를 정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세세생생 이어온 습성 때문에 공부를 해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 화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묶어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청규를 바탕으로 부처님가르침에 따라 화두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삿된 생각이 사라지고, 바른 수행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용맹정진에 나서는 상월선원은



부처님 법 이어지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부산 해운정사가 10월22일 경내 불심인조사전에서 제5회 선종본산 해운정사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를 봉행했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전 총무원장 의현, 교육원장 진우, 법어사 유나 인각 스님을 비롯해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정정복 해운정사 신도회장, 서병수 전 부산시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의장 등 1000여명이 동참했다. ▶ 관련기사 8면 부산=주영미 기자 ez201@beop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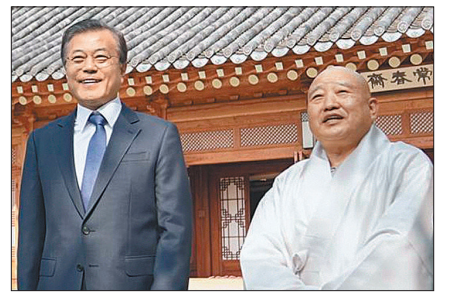
분명 천고의 귀감이 되는 회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오랜 기간 중무행정을 봐 왔던 스님들과 선원에서 정진했던 구참스님들이 함께 천막결사에 나서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님은 “출가대중의 궁극적 목표는 화두참구를 통해 부처님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며 “대중생활을 위해 소임을 정한 것뿐이지 이판승이니, 사판승이니 하는

구분은 따로 없다. 출가대중은 화두참구를 통해 견성성불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또 위례천막결사가 한국불교 수행풍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스님은 “작은 물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9명 스님들의 발심은 한국불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방선원 대중은 물론 일반 불자들이

에게도 환희심을 주고, 신심을 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는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을 향해서도 “부처님 법문을 늘 참구하면서 자신의 화두를 일념으로 의심하고 행해야 한다”며 “그런 정진이 이어진다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인터뷰 3면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공정사회 향해 걸으시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청와대서 문 대통령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사회를 향한 길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10월21일 청와대 상춘재로 7대 종교지도자를 초청해 오찬간담회(사진)를 가진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사안들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고심하자 원행 스님은 원효대사의 ‘화쟁’을 언급하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원행 스님은 “화쟁의 핵심은 ‘지공(至公)’으로 자극히 공정하고 가장 공정한 경지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사회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가장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부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지도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평화 그리고 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고 함께 기도해주시라”며 7대 종교지도자 대표로서 종교계 역할도 언급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20만 불자 운집 ‘국민화합·세계평화’ 발원

10월20일, 불교문화대축제

‘백만원력 결집’에도 동참

분열과 경쟁을 넘어 화합과 일심으로 한국불교의 도약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20만 사부대중의 발원이 부산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다.

부산 불교문화대축제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경선 스님, 박수관)는 10월 20일 부산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2019 불교문화대축제’를 봉행(사진)했다. 이날 부산시민공원에는 1500여명의 스님을 비롯해 20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



참, 세계평화의 원력을 새기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축제는 식전 축하공연과 본 행사,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 화합한마당, 건봉사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천전 등으로

진행됐다. 장산 원각사(주지 안도 스님)의 어린이 불무도 시범단의 활찬 시연으로 문을 연 축하공연은 장, 연화무, 대북연주로 이어졌다. 본 행사는 100명의 스님이 특설무대에 오르는 백고대자로 시작됐다.

스님들이 백고좌에 자리한 뒤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금정총림 범어사로 이운해 온 치아사리를 다시 부산시민공원 특설무대 중앙으로 이운하는 의식이 봉행됐다. 사리를 무대 중앙에 봉안한 직후 육법공양, 삼귀의 및 반야심경, 부산불교연합회장 정각 스님의 고불문, 백고좌 스님에 대한 예, 감사패 및 공로

패 전달식이 마련됐다. 이어 봉행사, 대회사, 봉축사, 100만 원력결집 불사 약정, 격려사, 축사,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 메시지,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법어, 결의문 낭독, 자비의 쌀 전달,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축하 등 순서가 이어졌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낙동강, 한강, 압록강이 바다로 흘러가면 한 물이듯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종교도 추구하는 진리는 같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분별(思量分別)을 벗어나 화나고 괴로워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돌이켜 볼 때, 갈등과 대립을 넘어 인류는 세계 평화에 성급 다가갈 수 있으며 그것이 팔만대장경에 담긴 진리, 중도(中道)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6면 주영미 기자 ez201@beopbo.com

진각종 13대 총인 경정 정사 취임

10월24일 추대법회 봉행

진각종 13대 총인 경정 정사(사진)가 공식 취임했다.

진각종(동리원장 화성 정사)은 10월24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13대 경정총인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총인 경정 정사는 취임법어를 통해 “근본으로 돌아가면 곧 비밀장엄한 국토이니 근본자리,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가야 한다”며 “아직도 아픔이 가득한 현실상황에서 부처의 성품을 품은 일체 생령이 안락을 누리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사원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진각종 제13대 총인으로 추대된 경정



정사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인도 델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종단 입문 후 진선여중 정교, 행원심인당 등의 주교, 대전교구장, 교육원 교법부장, 제7대 총의회의원을 역임했다.

또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및 대학원장 등을 거쳐 제10, 11대 교육원장, 진각대학장,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 이사 등을 지냈다. ▶ 관련기사 4면 송지희 기자 jr35@beopbo.com



감사의 말씀

한국불교 역사상 시민과 함께한 최대 규모의 “부산불교문화대축제”가 깊은 감동과 함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덕큰스님 150여분, 대덕스님 1천삼백여분, 10만이 훨씬 넘는 불자와 시민들의 깊은 원력과 정성이 불교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번 축제의 정신을 이어받아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불교 문화를 열어갑니다.

나아가 불교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으로 더욱 정진하시어 불자와 시민들을 섬기는 새로운 불교문화를 열어 갑시다.

불자님과 시민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와 평명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머릿속여 합장 기원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19년 10월 30일

불교대축제 조직위 공동위원장 경선스님 합장 박수관